

# '왕의 공원 프로젝트' 실현 국비 지원 요청

### 우범기 시장, 전주 작은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 등 관계자와 현안사업 논의

우범기 전주시장이 국가예산의 키포인트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에게 전주 발전을 위한 왕의 공원 프로젝트 등 현안사업의 내년도 국가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우범기 시장은 4일 노인일자리 지원 방향과 취약계층 돌봄 사업, 미등록경로당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주를 찾은 김동일 예산실장을 비롯한 기획재정부 예산실 주요 관계자와 문화 관련 현안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우 시장은 전주의 역사적 정체성을 품고 일부 복원된 전라감영에서 진행되는 문화 관련 현안 사업 논의의 자리에서 시장 최대 현안인 '왕의공원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우 시장은 건의한 사업은 △유교문화의 대중화를 선도하고자 하는 '간재선비문화수련원 건립' △한옥마을 연계 체류형 관광객 유치 위한 '이중



우범기 전주시장이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에게 전주 발전을 위한 왕의 공원 프로젝트 등 현안사업의 내년도 국가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호수 조성' △미래 과학기술 체험교육 기반 마련 등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전주 국립 전문과학관 건립' 등이다. 기획재정부 예산실은 국가 예산을

편성·심의하는 핵심부서로, 시는 이날 현장 방문을 통해 전주시 핵심사업이 내년도 국가예산에 반영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의 경우 기재부 제2차 관과 예산실 고위공무원들이 전주를 찾아 정책 현장을 둘러보았으며, 우 시장도 각 부처 및 기재부를 지속적으로 방문 설득하는 등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어려운 정부 재정 여건 속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인 59억(764억 원)의 신규사업을 확보한 바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지난해 전주의 대변역과 새로운 혁신성장 기반이 될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전복특별자치도, 지역 정치권과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왔다"며 "올해도 주요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략적인 국가예산 확보계획을 수립하고, 한발 앞선 대응을 통해 민선 8기 시장 핵심 목표 구현을 위한 국가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옥기 기자

# 작은도서관과 함께하는 책 피는 봄

### 전주시, 20일 세병공원 · 27일 노송광장서 책 축제 진행

전주시는 20일과 27일 각각 송천동 에코시티 세병공원과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에서 '작은도서관과 함께하는 책 피는 봄' 책 축제를 개최한다.

올해 3회째를 맞은 '작은도서관과 함께하는 책 피는 봄' 책 축제는 지역독서문화 확산과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공립·사립작은도서관이 주축이 돼 진행된다.

먼저 오는 20일 덕진권역 행사에서는 전주시 곳곳에서 운영되는 사립작은도서관들이 연합해 작은도서관 홍보와 활성화를 위해 밖으로 나온다는 의미로 '우당탕탕 작은도서관'을 주제로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이날 행사에서는 '추억여행 그림책 만들기'와 '나만의 북커버 만들기', '책 등장인물 열쇠고리 만들기' 등 다양한 독서체험부스를 비롯해 △독서골든벨 △북마켓 등 시민들이 즐겁게 책을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이어 오는 27일 열리는 완산권역 행사는 공립작은도서관이 힘을 모아 준비하며, '2024 어린이 책의 해'를 기념해 0세부터 100세까지 모두가 즐길 수 있다는 의미의 '0(뽕뽕)의 책 세상'을 주제로 다양한 독서진흥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완산권역 축제에서는 인후초등학교 5학년 1반 학생들의 어린이 시 노래 공연을 시작으로 듀오 솔솔(solso)의 '그림책을 노래하다' 공연, '열두 달 자연놀이'의 저자인



강우근 붉나무 작가의 강연이 펼쳐진다.

뿐만 아니라 이날 펼쳐지는 독서 체험부스에서는 도서관의 책 분류 체계인 한국십진분류법(KDC)에 따라 △(000 종류) 똑! 똑! 도서관에서 놀자 독서대 만들기 △(500 기술과학) 건강하게 자라요 거품목욕 버블바 입욕제 만들기 △(800 문학) 나의 잡자리 친구 토닥이 인형 만들기 등 시민들이 다양한 주제의 독서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된다.

이강준 도서관본부장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험행사를 통해 온 가족이 책으로 소통하는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작은도서관 책 축제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책 축제의 자세한 일정과 프로그램 등은 전주시도서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옥기 기자

# 팔복동 철길서 흠날리는 이팝나무꽃 만나다

### 전주시, 26일~5월 12일까지 금요일 · 주말 · 공휴일 개방



### 전주 효자2동 자율방재단, 봄철 맞아 관내 우수관로 청결 활동

전주시 완산구 효자2동 자율방재단(단장 박수옥)은 4일 봄철을 맞아 관내 우수관로를 청소하며 쾌적한 동네 가꾸기에 앞장섰다.

이날 활동은 효자2동 자율방재단원 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와 주택가 배수 불량에 따른 침수 피해가 없도록 낙엽과 담배꽂이, 퇴적물 등 쓰레기 등 퇴적물을 제거하고 배수로 입구 주변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효자2동 자율방재단은 취약계층 재난 예방활동 및 재난 상황 시 취약지 사전예찰, 안전시설점검 확인, 복구 활동을 수행하는 등 지역의 안전비담목 역할을 하며 주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가 해마다 봄이 되면 새하얀 이팝나무꽃이 아름답게 흠날리는 전주 팔복동 철길을 개화 시기에 맞춰 시민과 관광객에게 전면개방기로 했다.

시와 한국철도공사 전북본부는 4일 시청 회의실에서 우범기 시장과 운재훈 본부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팔복동 팔복예술공장 주변 북전주선 산업철도 약 630m 구간을 이팝나무 개화 시기에 맞춰 시민과 관광객에게 전면개방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주시·한국철도공사 전북본부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시는 △이팝나무 개화시기 철길 개방 기간 행사 운영과 안전관리 △철도 관광상품 판매 홍보 지원 △지역관광자원 연계 철도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 지원 등에 나설 계획이다.

한국철도공사 전북본부는 △이팝나무 개화시기 철길 개방에 따른 행정적 지원 △철도 관광상품 및 전주 문화관광 연계상품 개발 및 운영 △철도 관광상품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등을 맡기로 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가 해마다 봄이 되면 새하얀 이팝나무꽃이 아름답게 흠날리는 전주 팔복동 철길을 개화 시기에 맞춰 시민과 관광객에게 전면개방기로 했다.

26~5월 12일까지 3주간으로 개방시간은 매주 금요일은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시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이팝나무 외에도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5일 동안 플라마켓과 먹거리 장터를 운영하고, 5월 5일 어린이날에는 소규모 공연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시민이 이팝나무와 어우러진 철길 경관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한국철도공사 전북본부를 꾸준히 설득해왔으며, 한국철도공사도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개방행사의 취지에 공감하여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운영 중인 철도 일부 구간 개방에 동의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국철도공사와 관광 분야에 대한 협력과 지원 등 더욱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 더욱 상생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팔복동 철길 일대를 이팝나무 개화 시기를 맞아 더 많은 관광객과 시민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장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 전주시설공단, 부모와 함께하는 생존수영교실 운영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이 어린이 수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와 함께하는 생존수영교실'을 운영한다.

4일 공단에 따르면 부모와 함께하는 생존수영교실은 이달 15~26일까지 10일간 전주완산수영장에서 총 10팀(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1팀은 초등학생 1명과 부모 1명으로 구성된다. 이를 위해 9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 신청자가 정원을 초과하면 추첨을 통해 수강생을 선발한다.

완산수영장은 경영과 아쿠아로빅 51개 강습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1700명 이상이 찾는 공공 체육



시설이다.

구대식 이사장은 "지역 어린이 수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생존수영교실을 지속 확대 운영해 나가겠다"며 "공공 체육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은 물론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위해 일익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 옛 전북의 구심점

##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자였다.

선화당

###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풍각

내아